

HISTORY



1870년
1870년 11월에 라이드 시의회가 선포되어 이듬해인 1871년 2월에 첫 선거가 실시됨

1903년
1903년에 첫 타운홀 전용 빌딩이 Tucker Street와 Blaxland Road 코너에 개관함

1922년
이 건물은 10년이 채 못되어 건축물 용도에 부적합하여 1922년에 그 옆에 추가 건물이 지어짐

1950년
1950년대 말에 두 건물 모두 용도 부적합 판정을 받음



1950년
카운슬은 현 건물 위치의 재개발, 라이드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 또는 "아일랜드 블록"에 건물신축 등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됨

1962년
카운슬은 카운슬은 "아일랜드 블록"에 지을 시빅센터 디자인을 발표함

1964년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진행되어 이 건물은 1964년 8월 15일에 개관

1970년
1970년에 커뮤니티를 위한 공용공간의 필요성으로 인해 라이드 100주년 도서관을 포함한 시빅홀이 개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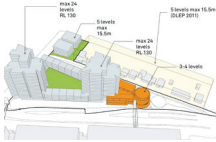


2005년
톱 라이드 시티 쇼핑센터 재개발이 시작됨

2007년
카운슬은 톱 라이드 시티 쇼핑 센터 재개발 동안 라이드 시빅센터 부지 재개발을 고려하도록 촉구받음

2010년
톱 라이드 시티 쇼핑 센터 재개발이 완료됨

2011년
라이드 도서관이 시빅홀 지하에서 톱 라이드 시티 쇼핑 센터 내 새롭고 획기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전함



2011년
라이드 시빅센터 부지 개발 구상이 대중에게 공개됨과 동시에 계획이 시작됨

2011년
지역 커뮤니티는 건물 높이를 24층 타워로 늘리는 것과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음

2015년
NSW 산업안전청 (SafeWork NSW)이 시빅 센터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한 결과 카운슬은 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의함

2016년
카운슬은 부지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자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 착수함



2017년
국제 디자인 공모전 우승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해당 디자인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18년
지역사회 전략 계획에서 추가적인 커뮤니티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주거용 단지개발 축소 요구를 확인함

2019년
현재 라이드시의 공용공간은 포화상태이며, 문화와 사회계획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커뮤니티와 시 모두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현재
일부 옵션과 오늘까지 접수한 피드백을 고려한 결과, '라이드의 새로운 중심지' 제안은 커뮤니티와 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함